

《북비핵화》소동에 숨겨진 흉계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비핵화》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떠들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직면한 현안으로 공화국의 《위협》을 꼽으면서 《북조선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하였다. 뒤이어 미국무장관 케리도 오바마의 발언을 되풀이하며 《압박과 제재로 외교가 가능하게》 하고 《북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미국의 추종세력들 또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비핵화》를 력설하며 맞장구를 치고있다. 지어 국제무대에서 이러저러한 문건들에 진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닌 《북비핵화》만인들이 쏘아넣었다고 체면도 가림이 없이 놀아내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출발한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드는 《북비핵화》만인들이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라 이미전부터 부단히 제기된것으로 단순히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나 북을 압살해보겠다는 체질적인 거부감과 극단한 적대 의식으로 부터 생겨났다는 데에 있다.

까놓고 말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비핵화》에 대해 말할 한푼의 자격도

체면도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 미국이 떠드는 《북비핵화》란 《북핵 포기》를 말바꾸기 한것으로서 그들이 운운하는 《북핵》이란 바로 저들이 초래한 결과물이기때문이다. 따지고보면 력대 미행정부는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고립압살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 선상에서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공화국을 먹여보겠다고 지난 세기 중엽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고 조선전쟁시기에는 핵무기사용까지 떠들어댔다. 전후에도 미국의 핵위협과 도발은 끊임없이 감행되었다. 특히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과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고는 것을 정책화하고 공화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며 공식화하였다.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술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끌어다놓고 대규모 모작된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감행되는 로골적인 핵위협공갈에 조선이 주눅이 들어 손을 들것이라고 어리석은 다산을 한것이 바로 부시행정부이다. 이러한 핵공갈정책은 부시행정부뿐만아니라 현 오바마마행정부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공화국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린것은 그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날로 엄중해지는 조선

반도정세에 결코 수수방관할 공화국이 아니다. 미국이 핵무동이를 휘두르면서 기어코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는 조선에서 공화국은 자기의 제도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핵에는 핵억제력으로 대답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너무도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결국 미국이 공화국을 핵전쟁억제력을 갖추도록 떠민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조선당국 역시 마찬가지로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마음이 떠민것을 위하는 마음이었다. 아마도 신성한 우리 령토에 악마의 무기, 가증스러운 핵무기를 결코 끌어들이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리승만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력대 남조선의 보수 《정권》들은 어리석은 《자유민주주의체화》서의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써서들이고 끌어들이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 매 시각 감행하였다. 조선반도에 핵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에 적극 추종하며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복잡장만 조장한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북비핵화》를 떠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전쟁억제력을 문제시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핵포기》를 《북비핵화》로 포장하여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없애버리려 하는 여기에는 불순한 흉계가 있다.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제거하여 공화국을 손쉽게 타고 잡아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자는것이 미국의 흉심이고 여기에 빌붙어 《자유민주주의체화》의 통일》을 실현해보자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들의 나쁜 행로 심보이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하여 그들은 《북비핵화》를 쌍괴리로 붙여대고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미국이 《21세기를 아시아태평양시대》로 떠들며 아시아화귀정책을 펴고있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역정세를 항상 긴장시켜놓고 침략과 간섭, 도발의 기회를 찾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으로서 력사적으로 증명되었었다. 아시아지역에서 정세가 완화되고 평온해지면 미국이 간섭할 기회와 명분이 없어진다. 이로부터 미국은 《북비핵화》를 떠들며 이 지역의 정세를 항상 긴장시켜놓고 그것을 기화로 많은 무력을 들이밀어 이 지역에서 대국들을 견제하고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 공화국을 제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론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진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비핵화》를 떠들기 전에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제하고 부단히 감행하고있는 핵전쟁연습부터 건어치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는 대응단을 내리야 한다. 이것이 없이 미국이 그 무슨 《북비핵화》를 떠들며 위협과 압박을 강화할수록 공화국은 이미 천명한대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될것이다.

7. 27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군대가 만약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한다면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에서 널뛰어는 미제의 군사기지들과 미국의 대도시들을 향하여 핵탄두로켓들을 발사하게 될것이라고 한것은 《북비핵화》를 떠드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적망동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이고 선언이었다.

서철수

독재시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재 미 동 포 들 시 위 투 쟁 전 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재미동포들이 내란음모사건 혐의자들에게 대한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폭압을 규탄하여 시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일 미국 뉴욕에 있는 남조선총령사관앞에서 재미동포들이 남조선의 현 《정권》과 검찰의 내란음모사건조작책동을 단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정권》의 시녀인 검찰이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조작, 위곡이라는 증거들이 수많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건관련피해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재판부가 《정부》와 검찰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만악의 근원인 정의 보전의 해체와 《정권》의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무산소독방감금 등 각종 고문을 무고한 수감자들에게 수년이상에 걸쳐 감행하고 있는 《죄》를 만들어 들먹이면서 하여 전세계에 악명을 떨친 미국의 판마나모수용소는 인권유린과 무법천지의 대명사로 오늘날 세상사람들의 저주를 받고있다.

미국의 식민지인 남조선에도 수감된 사람들에게 대한 인권유린관행에서 판마나모수용

소에 비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남조선 판 《판마나모수용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북리탈주민보호센터》(전 《중앙합동신문센터》)이다.

지난 2008년부터 공화국에서 유인람치해온 이른바 《탈북자》들에 대한 수용 및 조사의 명목으로 문을 연 이 정보원산하기관은 조직된 첫날부터 끌려온 사람들에게 대한 폭행과 폭언, 사생활감시 등 극악한 인권유린관행들을 감행한것으로 악명을 떨치였다. 정보원대거리들은 여기에서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개월동안 정보원 원장의 주관하에 이 소굴의 명칭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리탈

을 받아내고는 그것을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그대로 써먹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지난해에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다. 모친 고문물에 《오빠는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서범시공무원의 너들생이 법정에서 선고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자기에게 가해진 폭행을 만천하에 폭로함으

로써 이 범죄소굴의 실체와 거기에서 자행되는 악행이 날날이 발가지게 되었다. 하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적행위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이 범죄소굴을 당장 없애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에 바빠있는 정보원대거리들은 기자들에게 건물을 공개한다. 수감된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가리워보려고 분주량을 피워댔다. 얼마전 새로 임명된 정보원 원장의 주관하에 이 소굴의 명칭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리탈

주민보호센터》로 바꾼것도 이러한 소동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까마귀가 아무리 몸매 흰칠을 한다고 하여도 백로가 될리는 만무한 것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범죄소굴의 간판을 바꾸어던것은 저들의 비렬한 인권유린범죄가 드러나는것을 막고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와 귀순공작놀음을 더욱 합법적으로 벌려 나갈것을 노린 속이 뻔 드러나고 있다. 다름이 없이 다보이는 앞 수수에 불과하다.

실지로 정보원대거리들은 명칭만 바꾸었을뿐 오히려 내부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반공화국모략과 음모를 더욱 악랄하게 벌릴 준비를 추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저들의 인권유린범죄가 가리워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고는 없을것이다.

대결과 적대 의식을 낳는 온상, 북남관계개선의 압적 존재인 정보원과 《북리탈 주민보호센터》와 같은 범죄소굴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에 의해 반드시 해체되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얼마전 미국은 국회에서 재미동포들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과의 계약없는 상봉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리산가족상봉수정안》이라는것을 포함한 《대조선제국강화법》을 통과시키는 늑음을 벌려놓았다. 그런가하면 《재미리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이 뛰니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매를 기다렸다는듯이 미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청탁하는 늑음을 벌리고 유엔주재 공화국대표 부에 편지를 보내는 등 연극을 꾸미면서

마치도 상봉문제가 공화국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있다는듯이 모략적인 여론을 내뿜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벌리는 이러한 늑음이 재미동포들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정치화하여 그 무슨 《인권문제》로 공화국을 압박해보려는 불순한 정치목적적일 노란 광대국이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발생해고 근 70년에 이르도록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살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분열의 원흉인 미국대문이다. 해방후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비법적으로 다려갔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않았어도, 전쟁시기 원자탄으로 위협공갈하며 무고한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강제로 납북으로 련행하지 않았어도 애초에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와 같은 분열의 고통은 발생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더우기 미국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고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될 때마다 남조선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이며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고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와 봉쇄로

가죽, 친척문제와 같은 분열의 고통은 발생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2월에 마련되었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시에도 《리산가족상봉을 하더라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가 지켜보는 속에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직접사실무접촉이 진행되던 2월 5일에는 태평양사부마리아나제도의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있는 팔도에서 《B-52》 전략핵폭격기편대들을 조선서해 지도상공에 보내어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거레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울지 소리대기단》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은 고사

하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최대로 고조되고있다.

또한 미국은 가족상봉을 위해 고국을 방문하는 재미동포들을 감시하고 모초하며 동수색까지 하다 못해 가족, 친척들에게 보내는 열차 안되는 송금마저 차단하는 반인권분절적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도 조일정부가 회담결과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재일본조선인들의 조국래양문제를 비롯한

고 무례한 처사이다. 미국이 마치도 공화국때문에 인도주의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처럼 헐뜯고있는것은 여론을 오도하여 대외적으로 공화국의 영상을 호리케 하고 민족내부에 불신을 조성해보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더우기 그들이 《대조선제국강화법》이라는데 《리산가족상봉수정안》이라는것을 포함시킨것은 재미동포들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와 같은 순수한 인도주의적문제마저 정치화하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악용하려는 날강도적행위로서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는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것처럼 떠들고 뒤에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권과 타민족의 권리를 마구 짓밟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가 없이 재미동포들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과의 계약없는 상봉을 마련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서훈처리 정치적술수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들면서 우리 민족의 쓰라린 가슴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최값을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반역정당을 단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세월》호참사피해자유가족들을 모독한 《새누리당》을 비난하여 4일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자가 1일 《국회》청사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단식투쟁을 벌리는 유가족들

을 로숙자로 모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때만 해도 참사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무슨 《개조》를 운운하며 저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문턱에 걸려 현재

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있다 고 하면서 만일 《국회》가 제수실을 하였더라면 그들이 지금처럼 장기간 투쟁을 벌리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은 국민의 엄정한 눈길에 《새누리당》을 지켜보고 있다는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러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한세기이상 쓰고있는 식민주의(1)

미국에 의해 조작된 꼭두각시 《정권》

해방후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을 대신하여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올라 앉았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치게 되자 미국은 군정에 의한 로골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들에게 충실한 주구를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에 매달리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쏘미공동위원회를 파란시키고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일방적으로 제2차 유엔총회에 끌고가 비법적으로 상정시켰다.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저들

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회》를 조작하고 이 기구의 감시하에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 《결의안》을 강압통시시켰다.

이것은 전제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고 세계 여론을 무시하는 완전히 비법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므로 이 비법적인 《결의안》은 채택되자마자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1948년 1월 미국의 침략 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회》이 서운을 기어올라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2.7구국투쟁으로 발전

하였다.

《유엔림시조선위원회》안에서도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침략적인 기구에 계속 가담할것이니 말걸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리던 끝에 8개 성원국 중에서 4개 나라 대표는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미국은 또다시 이 문제를 유엔소총회(중간위원회)에 끌고가 1948년 2월 26일 강권을 발동하여 남조선전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범죄적인 《결의》를 채택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비법적인 《단독선거》실현을 위해 남조선강점 미군무

상 식민지정령을 쓰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마치도 저들이 《독립국》인양 허세를 부리지만 공정한 심판관인 력사는 어제도 오늘도 남조선이야말로 미국의 가련한 식민지라는것을 여지없이 고 발하고있다.

도 남조선인민들은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파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미군정이 출어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5.10단선》을 전후한 1주일동안에 만도 애국적인민들은 228개의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였으며 특히 제주도인민들은 무장투쟁으로 《선거》늑음을 완전히 분쇄하였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주구들은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리승만 《정권》을 조작하였다.

그때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여러번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갓 식민지통치의 안정적유지를 위한 꼭두각시교체늑음에 불과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있어도 자주권이 없고 정치적실권을 미국이 틀어쥐고있는것이 남조선의 엄연한 사실현실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